

서울 금융 허브 구축 방향

■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

정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육성을 추진

- 정부(재정경제부, 동북아시아위원회)는 지난 2003년 12월말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마련한 후, 서울을 국제금융허브로서의 육성을 추진 중임
- 금융허브란 일반적으로 금융거래의 중개와 결제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중심지를 말함
 - 국가/지역 단위 금융거래를 다루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활동하며, 자금 수요자 및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함
-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허브 중 특화금융허브와 글로벌금융허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역외 금융허브의 경우 규제완화, IT 발달로 역외금융의 역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 형태의 국가에나 적합한 모델임

< 금융허브의 구분 >

	특 징	사례 도시
글로벌 금융허브	-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금융하부구조 발달, 성숙된 금융시장 - 실물경제 기반, 기축통화	런던, 뉴욕
특화 금융허브	-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 주변 금융시장과의 강한 연계성 - 소규모 경제	홍콩 (주식, 신디케이트론), 싱가포르 (외환, 자산운용업), 취리히 (Private Banking), 에딘버러 (자산운용), 시카고 (선물시장)
역외 금융허브	- 비거주간 금융거래 (조세혜택 등) - 국내 금융시장과 격리	더블린
기장센터 (Tax Haven)	- 타지역 금융거래에 대한 기장 처리 - 조세 피난처	케이만 군도, 바하마, 라부안

2007년까지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 구축을 추진 계획

- 기장센터의 경우 돈세탁, 조세회피 등 문제로 인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이 강화 추세 속에서 고용창출, 금융기법 전수 등의 효과도 미미
-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자산운용업 위주의 특화 금융허브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금융허브를 어느 정도 지향하는 금융허브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역량분석을 통하여 자산운용 수요, 동북아 특화 금융수요 등 잠재 역량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하는 특화 금융허브 모델을 선택
 - 글로벌 금융허브 : 금융수요, 하부구조 등의 취약성 감안 시 런던, 뉴욕 등 대형허브 기능 대체는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임을 인식
- 단기적으로는 싱가포르를 모델로 하나, 장기적으로는 런던을 모델로 하면서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구상
 - 오랜 대외개방 역사 속에 자연발생적으로 금융허브화된 홍콩 보다는 정책적으로 육성된 싱가포르가 적합

<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계획 >

1단계 (~ 2007)	2단계 (~ 2012년)	3단계 (~ 2020년)
특화 금융허브 기반 구축	특화 금융허브 완성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업 육성 -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 - 지역 특화 금융수요 개발 -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 경영,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 - 동북아 구조조정시장 주도 -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 여타 분야 외국기관의 국내 기능 확대 - 국내 기관중 지역 챔피언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특화허브와 글로벌 허브의 중간 형태 -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의 지역본부 유치 - 2020년 이후 글로벌 금융허브로의 발전 모색

자료 : 재정경제부, 동북아시아위원회.

■ 싱가포르 · 런던 금융허브 성공 사례

(1) 싱가포르 금융허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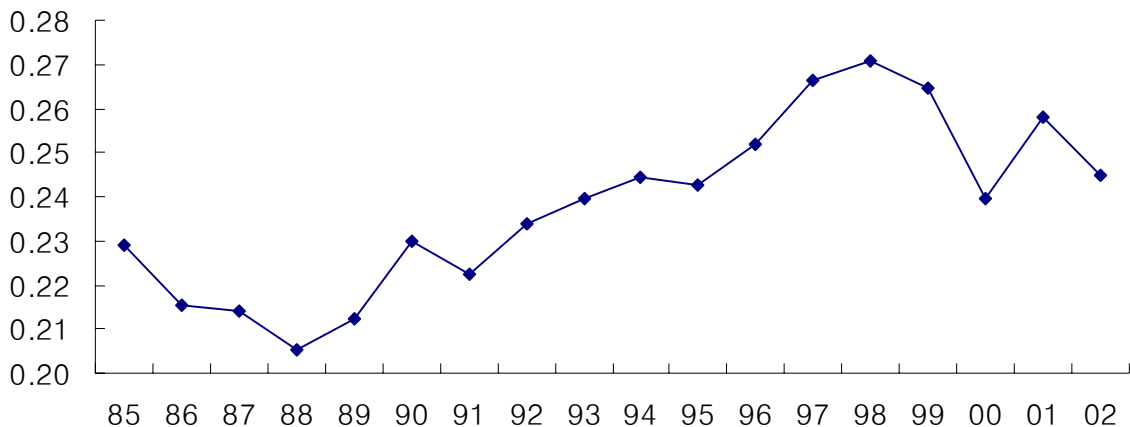
○ 싱가포르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함

- 싱가포르 정부는 1960년대부터 금융산업이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임을 간파하고 육성정책을 추진

싱가포르 정부,
1960년대부터 금
융산업을 육성
정책을 추진

- 싱가포르의 경제는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어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이 되었다가, 1959년 말레이시아로부터 자치주 지위를 획득한 데 이어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 시작
- 싱가포르 금융 산업은 1960년대 전반까지 제조업 및 국제무역 등 여타 산업에 대한 부차적인 기능을 수행

< 싱가포르 금융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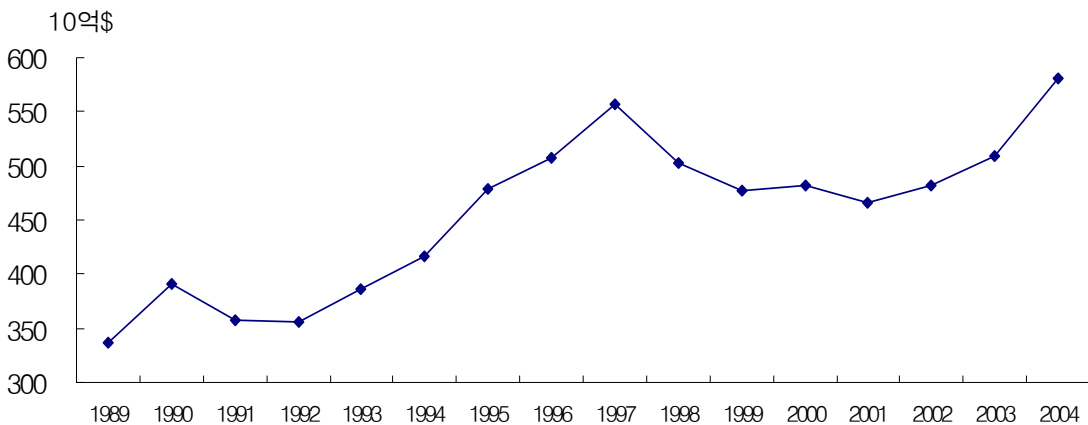


자료 : MAS(싱가포르 통화청).

60년대 집중 육성된 아시안 달러 시장이 70년대 들어 급성장

- 가장 먼저 런던의 역외금융시장인 Euro-currency market의 아시아 지역 모델을 싱가포르로 유치
 - 1968년 Bank of America가 싱가포르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설치한 후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예금을 수취하고 아시아지역의 기업들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역외금융업무의 시작을 계기로 Asian dollar market이 출범
- 싱가포르 Asian dollar market은 1970년대 이후 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증대되는 투자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으로 부상
 -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금융기관을 유치하고자, 역외계정을 허가하고 조세경감,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금융인프라도 크게 확충
 - 1971년 설립된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외화예금에 대해 지준예치금 면제
 - Asian dollar market에 특화된 역외은행(Offshore Banking)제도 도입

< Asian dollar market의 자산 추이 >



자료 : MAS(싱가포르 통화청).

80년대 들어 자산운용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GIC를 설립하고, 증권거래시스템을 선진화함

- 1971년 싱가포르 DBS Bank가 발행한 10년 만기 1천만 달러 채권을 최초로 발행한 이후 여러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Asian dollar Bond를 발행
- 1973년 싱가포르금융거래소(SES) 설립 이후 1984년 아시아 최초의 금융선물거래소(SIMEX)가 설립하여 금, 독일마르크, 유로달러, 엔 등의 선물계약 거래를 시작
- 1980년대 들어 자본시장, 외환시장 등 전통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선물시장, 자산운용업 등 새로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증권거래시스템 선진화 추진
 - 1981년 외환보유액을 포함한 정부 자산을 위탁 관리하는 싱가포르투자회사(GIC)를 설립
 - 1983년부터 비거주자로부터 예탁된 자금으로서 해외에 투자되거나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된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러한 펀드 취급에 따른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 적용
 - 1987년 싱가포르 국채경매시장을 개장하고, 국채 등록 발행제도를 도입

90년대 들어 협소한 국내 시장, 중국의 부상, 아시아 금융위기 등으로 금융허브 위상이 크게 약화

- 1990년대 이후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싱가포르 국제금융허브의 위상 약화에 대응하여 자산운용업, 리스크관리업 등 국제금융의 틈새시장에 집중하고 있음
- 협소한 국내 기반으로 인해 주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싱가포르 금융허브는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위상이 크게 약화
 - 국내 자본시장 발달이 미흡하여 주식, 채권 등 국제자본거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
 -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이 경제개방을 표방하면서 다

국적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영업거점을 설치 하면서, 북경과 상하이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떠오른 것에 반비례하여 아시아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위상은 약화

2000년대 들어
프로세싱센터,
리스크관리업
등 국제금융의
틈새시장을 집
중 육성

- 2001년 12월 국제금융센터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 강화, 프로세싱센터, 리스크관리업 등 국제금융 틈새시장을 집중 육성하는 발전 방안을 구상
 - 싱가포르를 국제채권시장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국채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의 싱가포르 달러 채권매입을 허용

아시아 대표적
인 금융허브 역
할 지속

- 싱가포르는 국제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금융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
 - 싱가포르는 동경,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
 - 주재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 수로는 런던, 홍콩, 뉴욕 다음이며, 예금은행 대외자산/부채로는 세계 6위권
 - 1990년 중반에 들어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어 세계 4위의 국제외환시장으로 성장

< 주요 국제금융센터의 예금은행 대외자산 및 부채 현황 >

(단위: 10억 달러)

	대외자산	대외부채	합계	순위
영국	2,645	2,881	5,526	1
미국	1,315	1,615	2,930	2
독일	1,500	1,267	2,767	3
일본	1,251	522	1,773	4
스위스	810	711	1,521	5
싱가포르	421	417	838	6
홍콩	391	241	63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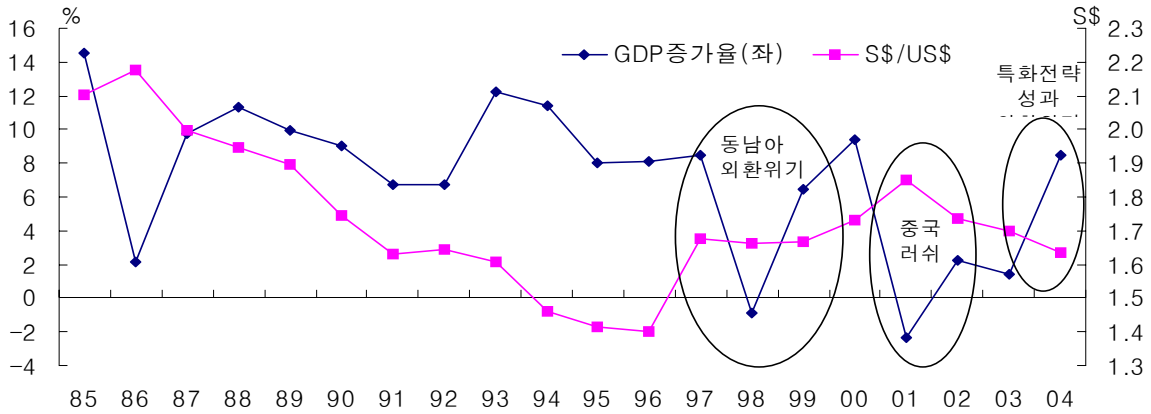
자료 : BIS, September 2003.

주 : 2003년 3월 기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구가

- 금융 산업의 발달 등에 힘입어 10% 수준의 성장률을 지속함
 -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 매년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
 - 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및 중국개방 확대 등의 여파로 일시 침체를 겪었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 및 환율 추이 >



< 지역별 전통적 외환거래 비중 >

(단위 : %)

순위 및 국가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1 영국	25.6	27.0	29.5	32.5	31.2	31.3
2 미국	16.0	15.5	15.5	17.9	15.7	19.2
3 일본	15.5	11.2	10.2	6.9	9.1	8.3
4 싱가포르	7.7	6.9	6.7	7.1	6.2	5.2
상위 10개국 소계	88.7	85.2	86.0	85.4	85.0	84.7
여타국 소계	11.3	14.8	14.0	14.6	15.0	15.3
(15 한 국)	(..)	(..)	(..)	(0.2)	(0.6)	(0.8)

자료 : 한국은행.

주 : 2004년 순위 기준임.

(2) 런던 금융허브 재구축

19C 후반 이후 런던은 세계 최대의 금융허브 위상을 구가하였으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쟁력을 상실

1976년말 외환 위기 이후 보수당 대처정부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경제개혁 시도

- 런던은 19세기 후반부터 세계 최대의 국제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지위가 약화
 - 19세기 후반부터 1차 세계대전 전 약 40년 동안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국제금융허브 지위 확보
 -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은 런던에서 발 행한 어음은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이 됨
 - 1913년 당시 영국에서 1년간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의 양은 400억 파운드로 경쟁국인 프랑스의 180억 파운드, 독일의 110억 파운드에 비해 월등히 컸음
 - 1870년 이후 구미 유수의 은행들이 런던에 지점을 개설
 - 그러나 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경제력이 위축되고, 기축통화국의 지위도 상실되면서 경쟁력 요인을 모두 상실함
 - 영국은 더 이상 세계최고의 경제대국도, 자본수출국도 아니며, 국제결제 통화에서 파운드는 달러에 의해 교체
 - 영국은 거시경제 불균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가운데 오일쇼크 이후 기초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자 1976년말 외환위기에 직면함 → IMF 구제금융
- 1979년 보수당 대처정부 출범 이후 고질적인 영국병 치유를 위한 대대적인 경제개혁 작업 추진
 - (대처수상의 개혁) IMF의 거시경제 개혁과 별도로 근본적이고 미시적인 경제개혁에 치중함
 - 산업, 기업, 노동시장, 정부조직혁신, 외국인투자유치, 등 구조조정을 단행

1986년 금융빅
뱅크 단행 이후
외국자본이 본
격적으로 런던
금융시장으로
진출

- 개혁의 일환으로 영국정부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s Act)을 제정하여 '금융빅뱅크'를 단행
 - 금융빅뱅크 이후 외국자본의 런던 금융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미국, 유럽의 선진금융회사들에 인수합병(M&A) 됨
 - SG워백, 베어링, 모건-그렌펠 등 수 백년 전통을 지닌 명문 투자은행들이 대부분 외국자본에 인수
 -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미국 대형 투자은행 런던 진출

- 영국 금융산업에 해외직접투자(FDI)가 집중되면서 금융산업이 발전되고, 전통 금융강국의 위상을 회복

- (런던 금융시장의 발전) 규제완화와 외국 금융기관의 선진금융기법이 도입되면서 빠르게 발전
 - 선물, 옵션, 스와프 등 여러 신종 금융상품이 개발
 - 마케팅, 리스크관리, 상품개발 등 선진 금융기법 축적
 - 금융감독기법, 관련금융법규 등 금융인프라 선진화

런던 금융허브,
빠르게 발전하
면서 세계 2위
의 금융지위를
회복

- (유럽금융의 중심지) 일본에게 내준 세계 2위의 금융시장 지위를 회복
 - London은 NewYork에 이어 세계 2위의 금융시장이지만 외국주식트레이딩, 국제본드발행과 유통, 외환딜링, 해상 및 항공 보험, 역외 은행대출 등에서 세계 1위
 - 2003년 3월 영국 내 은행은 모두 686개로서 이중 외국계은행은 287개(사무소까지 포함할 경우 447개), 자산 규모로서 외국계가 2003년 8월 기준 52%를 차지
 - 한편 넷웨스트, 바클레이즈, 로이즈, 미들랜드 은행 등 영국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거대그룹화

세계 최대의 금융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대외수지 개선

- (세계 최대의 금융수출국) 영국은 금융 서비스 수출 면에서 세계 1위
 - 2002년중 영국의 금융서비스 순수출은 보험(6,922 £m), 은행(3,189 £m), 증권딜러(3,080 £m) 등 총 17,842 (£m)

○ 금융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금융수출은 대외수지를 개선시키면서 영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

영국 금융산업, 경제성장과 고용에 크게 기여

- (대외수지) 금융수출은 대외수지 면에서 가장 큰 기여
 - 금융서비스는 비상품수지 흑자에 61% 기여(2002 기준)
 - 2001년 기준 금융서비스 흑자규모는 스위스의 \$7.8bn, 미국의 \$6.3 보다 훨씬 큰 \$18.7bn로 세계1위
- (GDP) 금융산업은 2002년 영국 GDP의 5.3%를 차지
 - 법률, 회계, 컨설팅 등 금융과 연관된 서비스 부분을 합하면 영국 GDP의 8.3% 기여 (금융산업은 2003년 3월 현재 104만명 고용)

< 영국, 미국, 일본의 부분별 금융시장 점유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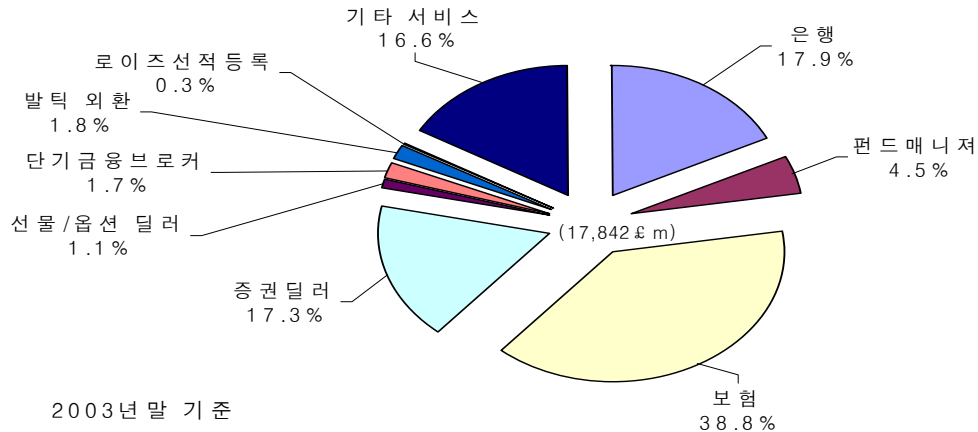
(단위 : %)

	영국	미국	일본
역외 은행 대출(2003. 3월)	19	9	9
외국주식거래(2003. 1월 - 9월)	45	32	-
외환딜링(2001. 4월)	31	16	9
파생금융상품			
외환거래(2003. 1월 - 8월)	6	27	3
장외거래(2001. 4월)	36	18	3
보험순프리미엄 소득(1999)			
해상	19	13	14
항공	39	23	4
국제채권(2002)			
발행시장	60	-	-
유통시장	7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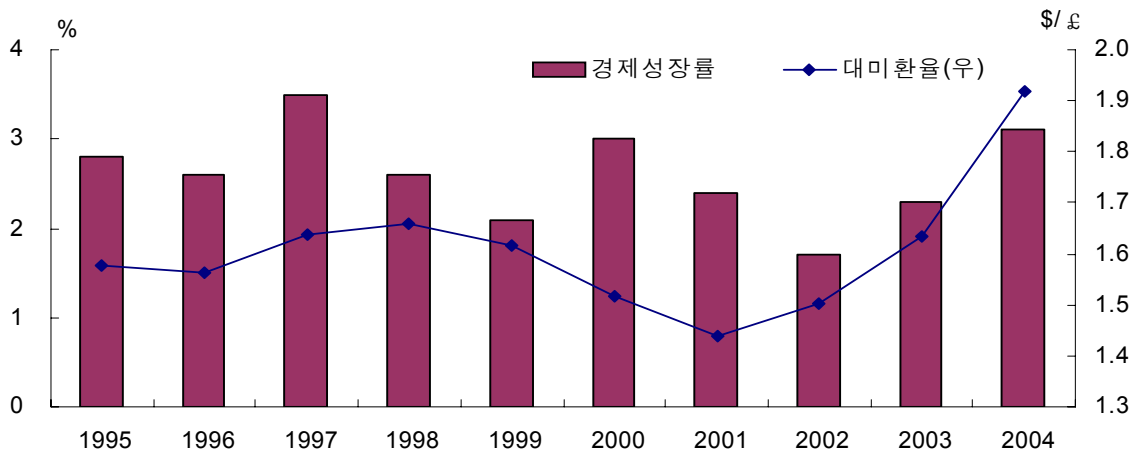
자료 : IFSL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 the UK).

- 외국자본이 투자은행업 분야에 집중 유입 → 세계 제 2의 금융시장 지위를 회복, 세계 최대 금융 순수출국의 면모 → GDP 및 고용에 크게 기여
-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영국 파운드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음

< 영국 금융산업의 분야별 순수출 비중 >



< 영국의 경제성장률 및 환율 추이 >



■ 성공 요인 분석과 서울 금융허브 역량 분석

(1) 싱가포르·런던 금융허브 성공 요인

○ 싱가포르 금융허브 성공요인

- | | |
|-------------------------------------|--|
| 동남아시아 중
심지, 천연의 중
개무역항 | - 지리적 이점
· 말레카 해협 입구의 전략적 요충지에 입지하여 천연의
중개무역항으로 발전 → 무역금융 발전
· 1970년대 이후 공업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온 동남아시아의 중심지에 위치
· 홍콩과 더불어 런던과 뉴욕의 중간 시간대 위치 |
| 합리적 법률제
도와 효율적인
상업제도의 토
착화 | - 사법 및 상업제도의 발달
· 영국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합리적인 법률제도와 공
정하고 신속한 사법제도가 일찍부터 토착화
· 정부의 각종 부정부패 차단노력,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공정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등 상업제도가 정착 |
| 정치·사회적
안정성 유지 | - 정치·사회적 안정 ¹⁾
· 반부패 개혁 및 경제발전 정책에 기인한 리완유 수상
의 절대적 국민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안정성
· 多민족, 多언어, 多종교의 복합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
육을 통하여 국민적 통합의식과 실용주의적 사고방식
의 함양에 주력함으로써 민족간 갈등 최소화 |
| 개방적 문화의
정착과 국제화
된 노동력 | - 개방문화와 국제화된 노동력
· 일찍이 중개무역항 발전 과정에서 개방적 문화가 정착
· 각 민족의 고유 언어를 인정하는 동시에 영어를 공용
어로 채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높은 영어 구사력 보유 |

정부의 확고한 의지 및 육성 정책

-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
 - 조세부담이나 규제 등 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금융인프라 확충 및 개선으로 선진금융기관 국내 유치
 - 국제 금융업과 국내금융업 사이에 차단벽을 설치하여 양 부분 간에 차별적인 규제정책을 구사
 - 효율적인 규제 및 감독정책을 구사

○ 런던 금융허브의 재구축 성공 요인

오랜 역사 속에서 정착된 개방적인 문화

- 오랜 전통의 개방성향
 - 시장 접근에 대한 상대적인 용이성과 외국 기업을 환영하는 문화
 - 19세기 후반부터 세계 교역과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개방적인 교역문화가 형성
 - 거래 문화와 전문가 지식에 의해 창출되는 혁신 존중

런던 내 특정 지역에 집중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 규모의 경제 실현
 - 런던내 특정지역에서의 금융기관과 연관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 금융산업 내 '규모의 경제' 효과로 비용절감
 - 높은 수준의 금융전문가와 회계, 보험, 법률, IT 등 지원 서비스 가능
 - 사무실, 통신 효율적인 인프라 등 상당한 규모의 물질적인 자산

EU시장과의 인접성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

- 기타
 - 세계 2위의 거대시장인 EU시장과 인접하고, 미국과 아시아 시간대의 중간 지점에 위치
 - 적극적인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영국 정부의 규제 환경 개선 노력

1) 1970년대 전반까지 레바논은 중동지역의 대표적인 국제금융허브로 부상했다가 장기간의 내전과 함께 몰락함

(2) 서울 금융허브의 역량 분석

- 한국, 동북아 주변국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의 금융시장 규모
- 동북아 주변국 도시와 비교한 서울 금융허브
 - (금융시장 양적 측면) 역내 경쟁국 도시 대비 상당 수준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규모를 보유
 - 2003년 GDP 규모 세계 11위 (\$606,080m) : 영국(4위, \$1,794,878m), 싱가포르(38위, \$91,342m)
 - 일인당 GNI 세계 49위 (\$12,030) : 영국(12위, \$28,320), 싱가포르(49위, 12,030)
 - 세계 12위권의 GDP 규모와 일본 제외한 아시아 제 1의 금융시장을 보유

< 아시아 주변국 주식시장 비교(2002년) >

국 가	상장기업수 (개)	연간 거래량 (억달러)
한 국	679	5966
홍 콩	978	1940
중 국	1,233	3523
싱가포르	501	631

자료 :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Annual Statistics.

주 : 중국은 상하이와 선전의 수치를 합침.

< 주변국 채권시장 비교(2002년) >

	한 국	홍 콩	중 국
상장총액 (억달러)	4,754	662	456
구성비:회사채	25.1%	4.0%	0.0%
국공채	74.9%	20.1%	100.0%
외채	0.0%	75.9%	0.0%

자료 :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Annual Statistics.

< 아시아(일본제외)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비중 >

	보험	소매금융	자산운용	기업금융	M&A	채권	외환
시장점유율	37%	26%	25%	21%	17%	32%	5%
순위	1	1	2	2	3	1	3

자료 : 동북아경제추진위원회 2003.12.

금융시장, 질적 측면에서 허브로서의 역량은 아직 미흡

- (금융시장의 질적 측면) 금융허브로서의 역량이 미흡
 - 자국 거래소에 상장한 해외 기업수(2003.6월 현재) : 싱가포르(71), 일본(32), 홍콩(10), 대만(5), 한국(0)
 - 비거주자 국내채권 발행비중(2002) : 홍콩(33.8%), 싱가포르(8.4%), 한국(0.04%)
 - 외환,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10억불, 일평균거래량, 04년 4월) : 일본(238), 싱가포르(142), 홍콩(117), 한국(22)

경제자유도, 싱가포르 및 홍콩에 비교하여 크게 떨어짐

- (규제 여건) 금융기관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자유도의 경우 싱가포르 및 홍콩과 비교하여 크게 떨어짐
 - 해리티지 재단의 2003년 경제자유도 지수에 따르면 홍콩은 161개국 가운데 1위, 싱가포르는 2위를 차지하였으나 한국은 52위를 차지
 - 금융기관 규제 적합성 : 홍콩(8.19), 싱가포르(8.09), 한국(5.74)

< 2003년 동북아시아 4국의 자유도 지수 >

	한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무역정책	3	5	1	1
정부의 재정부담	3	3	2	2
정부관여	4	4	3	3
통화정책	2	1	1	1
외국인투자	2	4	1	1
은행업 및 금융업	3	4	2	1
임금 및 물가	2	3	2	2
재산권	2	4	1	1
규제	3	4	1	1
암시장	3	3.5	1	1.5
평균/총순위	2.70/52	3.55/127	1.5/2	1.45/1

자료 : 안형도(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재인용.

주 : 점수 1~5, 낮을수록 자유도가 높음.

세계, 인적자원, 삶의 질 등 금융하부구조 측면에서도 열위

- 금융 하부구조(Infra-structure) 역시 미흡

- (법인세와 소득세) 홍콩과 싱가포르의 세율보다 불리
- (인적자원)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높으나, 국제금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국제적 금융인력은 경쟁국에 비해 수준이 크게 떨어짐. 한국의 경우 대부분 보조 인력으로 구성된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관리자 및 전문인력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삶의 질) : 미국(8.92), 싱가포르(8.03), 영국(7.76), 홍콩(5.91), 한국(5.64)

<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2003년 현재) >

	법인세	소득세
홍콩	16%	17%
싱가포르	22%	22%
중국	30%	45%
한국	27%	36%

자료 : 안형도(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재인용.

< 인적자원 수준 >

	그룹 A		그룹 B	
	홍콩	싱가포르	한국	중국
국제적 관리인력	5.91(2)	7.06(9)	5.18(22)	4.02(29).
금융인력	7.36(8)	7.81(3)	5.30(22)	4.56(27)
외국인 고급인력	7.13(5)	8.24(1)	4.53(16)	4.30(20)
숙련된 노동력	7.06(9)	7.42(5)	5.71(20)	4.34(28)

자료: IMD Competitiveness Year 2003.

< 주요 국제금융센터의 금융인력 구성 >

(단위: 명, %)

	영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관리자	111,995(12.4)	34,600(19.2)	19,222(17.8)	32,022(4.4)
전문가	148,533(16.4)	78,800(43.8)	55,369(51.3)	65,545(8.9)
보조인력	645,024(71.2)	66,500(37.0)	33,266(30.8)	635,433(86.7)
총계	905,552(100.0)	180,000(100.0)	107,859(100.0)	733,000(100.0)

자료: IMD Competitiveness Year 2003.

■ 대응 과제

금융을 통한 신
성장 동력 확보
가 절실

- 서울금융허브 구축은 신성장 동력산업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서둘러야 할 과제임
 - 제조업에서의 '중국 충격'에 대응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 차원에서 금융허브 구축이 시급한 시점임
 -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여 제조업 외에 새로운 대체 산업의 육성이 필요
 - 현행 동력산업인 IT 위주 성장은 수입부품 의존도가 높아 내수에 파급효과가 적고, 고용창출이 미미함
 - 금융은 자체로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며, 법률, 회계, 컨설팅 등 관련 서비스업 및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 상당
 -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금융기관/전문인력 수요 증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싱가포르와 영국 사례를 볼 때 금융산업의 발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금융산업 비중이 주변 경쟁국에 비해 취약함
 - 2002년 대 GDP 비중은 6.9%로 싱가포르의 11%(2002), 대만 11.5%(2003)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
 - 금융허브 달성에 실패할 경우 세계 10대 경제권 진입과 국민소득 20,000불 달성은 물론 현재의 우리 경제 위상 유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 동북아 경제의 위상, 역내 막대한 외환보유고, 고령화 및 부유층 증가 등으로 잠재적 자산운용관련 특화금융 허브의 성공 가능성은 높음

자산운용업을 통한 금융허브 구축의 성공 가능성

- 한·중·일 3국의 GDP가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에는 동북아 지역경제가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까지 커지고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까지 상승할 전망
- 세계 외환보유액 1~4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 4국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일본(8,377억\$)>중국(6,099억\$)>대만(2,511억\$)>한국(2,054억\$)> 외환보유액 활용문제가 대두
- 저금리 추세 속에서 고령화 사회가 대두되면서 국내 자산운용 상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부유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부유층 시장도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서울금융허브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 전략 분야 육성과 지역 선택이 중요하며, 정부의 육성 의지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단기적으로 자산운용업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업에도 초점

- (전략 분야 육성) 단기적으로 자산운용업 및 자산관리업 중심으로 발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투자은행 업무 중심의 금융허브 육성이 바람직함
 -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소매금융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금융시장의 중심이 되는 금융허브 구상과는 다소 거리가 멀음
 - 단기적으로 동북아 시장을 상대로 한 자산운용업 뿐만 아니라 부유층이 급증하는 동북아 지역의 자산관리업 등에도 치중해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 투자은행 업무를 중심으로 육성

-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개발을 위한 투자은행 업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화하고,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유치 방향도 은행에서 투자은행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규모의 경제를 위하여 서울 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육성

- (지역 선택)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특정지역(여의도 등)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 서울시, 2004년 여의도 서울시 부지에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세계 2대 금융그룹인 AIG 지역본부를 유치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세계 우수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를 유치 중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 추정에 의하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 1조 7,040억원, 부가가치 6,854억원, 고용 21,723명 등 유발
 - 반면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들은 서울 명동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함

< 서울과 싱가포르 금융허브의 장단점 >

	한 국	싱 가 포 르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규모의 국내 금융시장 ○ 우수한 IT 인프라 ○ 비교적 성공적인 금융구조조정 ○ 동북아 시장의 중심에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세제혜택 ○ 높은 금융시장 개방도 ○ 영어 통용과 개방적 문화 ○ 물가안정과 높은 수준의 삶의 질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 문제 ○ 제약이 많은 규제시스템 ○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 비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 ○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 구조 ○ 영어통용 문제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시장 협소(경제규모는 한국의 1/10) ○ 정책적 폐쇄성 ○ 동북아 시장과의 지리적 괴리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와 추
진력

- (정부의 추진 의지) 현 상황 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금융허브 모델을 선택하고, 선택된 모델의 비전을 향한 정책 결정 의지와 과감한 리더쉽
 - 싱가포르 정부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벤치마킹
 - 국내 정치 안정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요인 해소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선진화된 금융규제 감독 체계 구축
 -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 구조의 개선
 -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긴밀한 협조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인
프라 구축 등
경쟁력 제고

-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 다음과 같은 점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 교역과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 확립과 경쟁력 있는 인프라의 구축
 - 특히 외국 기업 진출 등에 대한 개방적인 마인드 확립
 - 의료, 교육, 교통, 환경 등 수준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생활여건 마련
 - 영어에 능통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겸비한 금융 인력 양성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 금융전문가 육성 **HRI**

박덕배 연구위원 lbh@hri.co.kr ☎ 3669-4009